

2019 국별 진출전략

쿠바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 1. 개요 3
 - 가. 시장 전망 3
 - 나. 주요 경제지표 4
-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 가. 포스트 카스트로 신정부, 체제안정화 기반 점진적 개혁추진 전망 4
 - 나.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통제도 한증 강화 5
 - 다. 최대우방국 베네수엘라 위기지속, 교역파트너 다변화 추진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 2. 시장분석 11
 -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11
 - 나. 수출입 12
 - 다. 투자진출 13
-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15
 - 가. 교역 15
 - 나. 투자 17
 -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17

III. 진출전략 19

-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19
-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
- 3. 한-쿠바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4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27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28

첨부 3.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29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31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 2019년, 대내외 부정적 경제충격 영향으로 1% 내외 경제성장 전망

- (대외) 트럼프 행정부의 대 쿠바 강경노선 지속으로 인한 사업환경 악화, 최대 경제협력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로 교역량 급감
- (대내) 국영중심의 비효율적 계획경제 고수, 자영업 성장제한, 이중화폐제도경제왜곡 지속,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프라 피해 여파 등

□ 관광중심의 서비스산업 의존경제로 외부취약성 상존

-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영향으로 2014년 3백만 명 규모 관광객수가 2017년 470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는 미국관광객감소 여파로 성장세 주춤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구	백만 명	11.4	11.5	11.5	11.5	11.5	11.5
명목 GDP	십억 달러	80.6	87.1	88.2	91.0	96.9	103.6
1인당 명목GDP	달러	7,050	7,602	7,689	7,926	8,435	9,013
실질성장률	%	1.0	4.4	-0.9	1.6	1.1	0.9
실업률	%	2.7	2.4	2.0	2.2	2.4	2.7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2.7	2.8	2.4	1.8	1.6
재정수지(GDP대비)	%	-1.6	-5.5	-6.3	-11.0	-8.9	-6.7
총수출	백만 달러	5,149	3,572	2,535	2,869	3,031	3,210
(對韓 수출)	"	12.2	5.7	5.7	2.9		
총수입	"	13,101	11,745	10,279	9,991	10,550	11,019
(對韓 수입)	"	56	51	42	70		
무역수지	백만 달러	-7,952	-8,173	-7,744	-7,131	-7,519	-7,809
경상수지	"	3,112	1,931	1,792	1,952	1,555	1,829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0	1.0	1.0	1.0	1.0	1.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	-	-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	-	-	-	-	-

주: 2018년 추정치, 2019년 전망치

자료원: EIU, IHS, ONE, KITA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디아스카넬 신정부, 체제안정에 역점을 둔 점진적 개혁 추진 전망
- 쿠바 민간경제, 정부의 통제권 안에서 점진적 성장세 유지
- 최대 협력국 베네수엘라 위기로 협력파트너 다변화 노력 확대

가. 포스트 카스트로 신정부, 체제안정화 기반 점진적 개혁추진 전망

□ ‘혁명 후 세대’ 집권

-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약 60년간 이어진 카스트로 형제 및 혁명 1세대 주도 통치시대를 마감하고 2018년 4월 디아스카넬이 이끄는 ‘혁명 후 세대’ 집권
- 국가평의회 위원 31명 중 13명이 교체되고, 부의장단도 라미로 발데스(85세)를 제외하고 전원 ‘혁명 후 세대’로 구성되어 향후 디아스카넬이 이끌 실용주의적 정책추진의 구심적 역할 기대

□ 先 안정, 後 개혁

- 디아스카넬은 쿠바혁명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기존 라울 카스트로의 개혁의 완수를 최대 책무로 표명하고 있으나, 정치기반 공고화 이후에는 실용적인 정치경제 개혁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
- 디아스카넬은 집권 직후 시대 요구에 맞는 체제구축을 위해 헌법개정을 추진 중
 - 2018년 7월 의회가결, 연말까지 국민의견수렴 및 조정이후 12월 확정, 2019년 2월 국민투표 실시 예정

헌법개정안 주요내용

(정치) 현재 쿠바 최고지도자는 국가평의회 의장(각료회의 의장 겸임)이나, 최고지도자직으로 대통령/부통령제 신설하며, 국가평의회 의장, 각료회의 의장을 분리함(각료회의의장은 신설 ‘총리’가 맡음).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 가능

(지방자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주정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 강화

(경제) 시장의 역할과 사유재산 인정, 외국인투자를 국가경제발전의 중요 요소로 인정하고 이를 보장

(사회) 동성 간 결혼 허용(결혼의 정의를 ‘기존 남녀에서 두 사람 간’으로 변경)

□ 신정부 시급한 현안 산적

- (내부개혁지연) 이중화폐·다중환율제도로 인한 경제왜곡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폐단일화 시점 불투명. 자영업에 대한 통제강화로 민간경제 성장제한
- (자연재해) 2017년 9월 쿠바전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어마(Irma)의 영향으로 130억 달러 규모의 전력설비·주택·농작물 피해발생 및 여파 지속
- (대미관계) 2014년 오바마정부시절 대미 관계정상화 이후 관광객 급증, 시장개방 기대심리회복으로 전세계 기업들의 시장진출시도가 증가했으나 트럼프행정부의 강경노선 선회로 비즈니스 환경 불투명
- (베네수엘라 위기) 쿠바의 최대경제협력국인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로 원유·의료서비스 바터제 교역 축소
 - 원유공급량 일 10만 배럴에서 4만 배럴로 감소, 의료진 파견자수 4.4만에서 2.8만 명으로 축소

나.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통제도 한증 강화

□ 자영업 중심의 민간경제 지속 성장

- 자영업은 라울 카스트로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2010년 5만 명 수준에서 2017년 59만 명으로 급증하여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를 보완하고 시장경제의 시험대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자영업에 투입되는 자본은 주로 해외거주 쿠바교민이나 외국인으로부터 유입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신흥 부유층도 등장

□ 부의 집중 막기 위한 통제 병행

- 쿠바 정부는 비대한 정부부문 경제를 점차 축소하면서 민간경제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민간부문의 과도한 성장이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어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유지 추진
- 쿠바정부는 수시 사찰을 통해 자영업자 세금탈루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수시로 신규 자영업 면허발급을 중단하기도 함

□ 2019년부터 자영업 통제 대포 강화

- 쿠바정부는 2018년 7월 신규자영업 운영규정을 발표하여 자영업자의 자금흐름 통제를 강화하고 부의 축적을 제한하는 조치 단행(시행 : 2018년 12월)

자영업 운영규정 주요 변경사항

- 영업 허가증을 발급하려면 사업 자금출처(계좌, 자금확보 경로 등)를 상세 신고해야 함
- 개인당 하나의 자영업 등록만 허가되도록 규제함. 2010년 자영업이 허용되었을 당시에는 개인이 여러 개의 자영업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변경은 1인 1자영업 승인 취득을 골자로 함. 집중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
- 자영업종수를 기존 201개에서 123개로 통합조정. 특히 요식업/레스토랑, 바/레크리에이션업, 제과제빵업, 차량임대업 등의 신규 면허가 도입되며, 농산물 도소매업 등은 자영업 허용 대상에서 제외됨
- 택시 자영업 통제 강화(노선별 운행 합승택시, 자유노선 택시제를 도입하고 최소소비 의무주유제 등 도입)

다. 최대우방국 베네수엘라 위기지속, 교역파트너 다변화 추진

□ 쿠바-베네수엘라 바터제방식 교역 타격

- 쿠바는 차베스 정권시절부터 카리브석유동맹(PetroCaribe)을 근거로 베네수엘라로부터 저가의 원유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의료진과 교사를 파견(일종의 바터제)해 오고 있음
- * 베네수엘라의 對쿠바 1일 원유공급량은 2008년 10만 배럴에서 2017년 4만 배럴로 축소
 - * 쿠바의 對베네수엘라 의료진 파견자수는 2012년 4.4만 명에서 2017년 2.8만 명으로 감소
- 현 마두로 정권의 최근 정치적 입지 악화 및 경제위기로 최근 對쿠바 원유 공급 불안정, 이로 인해 쿠바 에너지난 가중
 - PetroCaribe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거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쿠바는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

□ 포스트 베네수엘라 대비 파트너 다변화 모색

- 쿠바는 베네수엘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존도를 줄이는 반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유럽, 러시아, 중동 등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
-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2014년 기준 쿠바 전체 교역액의 40%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17%로 급감. 반면 중국은 2016년부터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
 - * 중국의 교역점유율 : 2014년 9%→ 2016년 20%
- 원유의 경우 러시아, 앙골라 등으로부터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2018년 11월 신임 국가평의회 의장 디아스카넬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 등 전통 우방국 순방을 시작으로 통해 이들과의 외교적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원조 확대를 위한 소위 경제외교 행보에 본격 돌입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안정적 경제성장 및 대외교역 원활화 위해서는 대미관계 개선 절실
- 국가전략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관광·원유개발 프로젝트 추진 활발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노력 확대

가. 정치 환경

□ 디아스카넬 신정부, '안정 속 개혁'에 방점

- 2018년 4월 최고지도자가 된 디아스카넬은 라울 카스트로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혁명의 연속성과 체제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음
 - 라울 카스트로는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공산당 제1서기직을 그대로 유지(임기 2021년)하고 있어 막후 영향력 행사 가능
- 디아스카넬은 집권 직후 시대적 요구에 맞는 쿠바식 사회주의 구현을 위해 대통령제 부활, 사유재산인정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예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정권 초기는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정치기반 공고화 이후에는 보다 실용적인 개혁조치 단행 기대

□ 대미관계 개선전망 미지수

- 트럼프는 2017.6월 오바마의 대쿠바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일부 철회하고 대 쿠바 개인여행금지, 쿠바 군부와의 경제활동 금지 등 조치
 - 이로 인해 대쿠바 비즈니스심리가 위축되고, 2017년까지 급상승하던 쿠바방문 관광객 수가 2018년 들어서는 소폭 감소
- 트럼프의 조치는 쿠바 우방국들 및 쿠바 민간경제(자영업 등) 종사자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고 있음

- 쿠바정부는 이에 대해 무대응 및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트럼프도 동 조치 이후에는 별도의 대쿠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쿠바의 근본적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엠바고 완화·해제가 중대이슈이기 때문에 현 쿠바정부의 행보에 관심 주목

나. 경제 환경

□ 경제성장률

- 미국 관계 정상화 모멘텀을 계기로, 산업 전반에 활기가 살아나며 '15년에는 4%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 최대교역국 베네수엘라 경제위기, 니켈 등 주요수출원자재 가격, 허리케인 피해 등으로 경제성장 위축세 지속
- 2019년에는 주요 수출 원자재(니켈, 설탕)의 저가세 및 베네수엘라산 원유공급 축소 등의 악영향이 있으나, 관광·건축·운송분야 약진으로 1%대 경제성장 예상

[쿠바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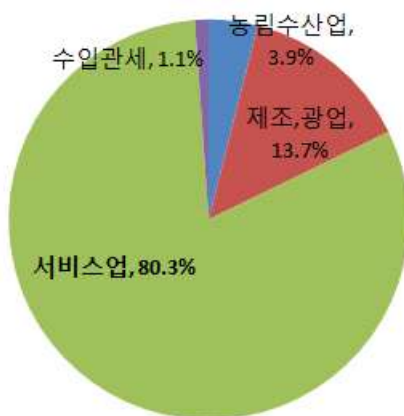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0	2.7	1.0	4.4	-0.9	1.6	1.1	0.9

자료원: EIU, ONE

□ 경제구조

- 제조업은 기초경공업은 제외하고는 사양화되고 있음
 - 서비스 비중이 80%차지. 농업·수산업 등 1차 산업도 설비 및 기술부족으로 비중 축소

[쿠바 산업 구성(2016년 기준)]



분야	비중(%)	분야	비중(%)
농업, 목축업	3.8	금융	1.4
수산업	0.1	비즈니스지원, 부동산	2.6
광업	0.5	공공관리, 치안, 국방	3.8
설탕산업	0.6	과학	0.3
제조	13.2	교육	6.5
건설	7	보건복지	18.2
전력, 가스, 식수	1.6	문화, 스포츠	3
교통, 창고, 통신	9.2	기타서비스	2.5
상업	19.8	수입관세	1.1
호텔, 식당	4.7	합계	100

자료원: 쿠바 통계청(ONE) www.one.cu

□ 만성적 외환문제 상존

- 고질적 외환부족으로 수출대금 미결제 및 대금지연 빈번. 주요 채권국의 최근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단기상환외채가 50억 달러 상회
- 매년 8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으나, 관광수입(연 35억 달러), 재외동포송금액(연 25~30억 달러), 의료서비스수출(연60~80억 달러) 등을 통해 보전 중

다. 산업 환경

□ 신재생에너지 발전

- 쿠바는 전력생산의 95.7%를 석유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4.3%대로 낮아 2030년까지 이를 24%까지 확대 추진

- (바이오매스) 사탕수수공장에 755MW용량의 19개의 바이오전력설비 건설 추진 중이며, 사탕수수부산물 및 산림자원 활용
- (풍력) 633MW용량의 13개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풍력발전 타워, 터빈 등 주요부품은 외국기업과 조인트벤처를 통해 자체 생산 희망
- (태양광) 2030년까지 700MW 용량의 풍력발전설비 건설 추진. 자체적으로 150 및 240 Wp급 태양광 패널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음(연간 14MW 용량 생산 가능)
- (수력) 전국적으로 74개의 소수력 발전 추진(총 56MW 용량)

□ 유전 개발

- 미국 지질조사국(USGS, 2004년)에 의하면, 쿠바 서부지역의 북쪽 절반 및 멕시코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포함하는 소위 'North Cuba Basin' 지역에 46억 배럴의 원유, 9조 8,00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9억 배럴의 액화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 특히 북부 및 서부 해안 50~80km 부근에 매장원유의 70%가 위치함
- 쿠바는 유전개발에 외국자본 및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탐사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심해 49개 블록, 인근해 8개 블록, 육상 19개 블록을 지정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 멕시코만 유전탐사에는 Repsol(스페인), Petronas(말레이시아), Gazprom(러시아) 등이 참여했으나 실패했고 현재 Sonangol(앙골라), PDVSA(베네수엘라) 등이 참여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함
- 현재 가장 유망한 탐사 프로젝트는 호주 Melbana Energy사가 참여하고 있는 Matanzas 연안의 Block 9지역(919평방마일)으로 2018년 중반부터 시추 진행. Melbana사에 따르면 Block 9지역의 원유매장량이 최소 12억 배럴에서 최대 127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추정

□ 관광산업

- 쿠바 방문 관광객 수는 미국과의 수교 이후 급증 추세이며, 연간 관광수입액은 35억 달러에 달함(상품수출액보다 높음.)
 - 관광객수 : (2013년)280만, (2015년)350만, (2016년)4백만, (2017년)470만, (2018년 10월말) 400만
- 매년 꾸준한 관광객 증가 추세 대비 정부가 독점 운영하는 호텔 등 숙박시설 인프라가 부족하여 민박 자영업 육성을 통해 이 공백을 메우고 있음
 - 정부운영 숙박시설의 객실 수는 2018년 기준 6.7만실이며, 2030년까지 10.3만실까지 확충 추진
 - 민박객실수(자영업)는 2.2만실에 달함
-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숙박시설(호텔,민박)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관된 객실용 가전기기, 관광용 렌트카, 식음료, 전자재 등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라. 정책·규제 환경

□ 마리엘경제특구(ZEDM) 지원법(2013년 발효)

- 마리엘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고용, 세제, 투자절차, 원스톱창구 운영 등에 대한 기본틀 마련

[세제 혜택]

세 금	혜 택
법인세	- 10년간 면제(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10년 이후부터 12%의 법인세 부여 - 수익금을 재투자할 경우 추가 세제혜택 부여
도매세	1년간 면제(이후 1% 과세)
서비스세	면제
노동사용세	면제
수입 장비 관세(투자 목적으로 수입시)	면제
지역발전세	면제
복지세	14%
환경세	투자 후 안정기까지 50% 면제

□ 신외국인투자법(2014년 발효)

- 외국인 투자자 소유권 허용
 -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며 외국 거주 쿠바인의 투자도 허용
 - 과거에는 규정상으로도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었으며 실제로는 정부가 이를 허용치 않아 사업 운영권 보장이 어려웠음
-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 내용에 따라 대사업과 소사업으로 구분, 소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45일 내 사업승인
- 조세감면 혜택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국제경제제휴계약의 외국인 투자자 파트너의 경우,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배당금 및 수익에 대한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감면
 -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국제경제제휴계약의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순수과세대상수익에 대한 소득세 15%(과거에는 35%)를 사업 초기 8년간 면제

2. 시장분석

- 카리브해 최대규모 시장, 진입장벽 높지만 성장 잠재력 무궁무진
- 외자유치 통한 경제성장 동력확보 추진, 마리엘특구 중심 점진적 성과 창출
- 중국, 베네수엘라가 최대 교역파트너이나 쿠바는 교역파트너 다변화 추진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국가(국영기업)가 경제권 장악

- 쿠바 국영기업은 총 1,992개사로 무역, 생산, 유통, 금융, 관광, 통신 등 전영역에서 독과점 형태로 경제활동 수행
- 수출입은 총 124개 국영기업에만 품목별로 권한이 부여되어, 바이어의 협상력이 매우 높음
- 협동조합의 경우 농업부문 중심으로 약 5,500개가 있으나 수출입권한 미부여. 자영업의 경우는 법인격이 없어 수출입자격 부여 불가

□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

- 만성적 외화부족으로 보통 1년 외상거래 일반적
 - * 자동차 등 일부품목은 4년 외상요구. 수출대금 미결제 사고도 빈번
- 미국 금융제제 의식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L/C인수 회피현상 발생
- 고용주-노동자간 직접계약 불가에 따른 高노동비용

□ 중남미 최고의 바이오·제약산업 거점

- 쿠바는 전체의약품 수요의 65% 이상을 자체생산으로 조달하고, 연간 약 6억달러(전체 수출액의 12.2% 차지)를 수출할 정도로 바이오·의료산업 발달
- 해외 50여개국에 쿠바의약품 800여건을 등록했으며 1,800여개의 특허 취득(추가 2,000여개 취득 진행 중)
- 18개국 30여개국의 해외 병원과 협력하여 의약품 임상시험 중이며, 브라질, 베트남, 인도, 남아공, 베네수엘라, 중국 등과 기술이전사업 진행

□ 의료서비스 수출이 국가경제 견인

- 쿠바는 전세계 67개국에 다양한 국제협력목적으로 5만여명의 의료진을 파견 중이며, 이 중 27개국에는 상업적 목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
- 연간 의료서비스 수출액은 82억 달러 수준(2015년)으로 상품수출액의 1.7배에 달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의료진 파견과 연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도 패키지로 수출 중
 - * 의료서비스 수출액 : (2007년) 20억 달러→ (2011년) 65억 달러→(2015년) 82억 달러
 - * 주요국 파견 의료진수(2015년) : 베네수엘라(32,000명), 브라질(11,400명)

나. 수출입

□ 교역 개요

- 쿠바의 상품수지는 연간 80억 달러의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의료 수출 및 관광수입 등의 서비스 수지를 포함한 무역수지는 연간 20-30억 달러의 흑자 기록
- 주요 수출입품목(2015년 기준)
 - 주요 수출품 : 석유(47.9%), 니켈(16.4%), 의약품(14.0%), 설탕(8%), 담배(4.7%)

- 주요 수입품 : 원유(43%), 식품(16%), 화학제품(11%), 기계(4%) 수입

□ 베네수엘라, 중국이 최대 교역국

- 베네수엘라는 2015년까지 최대교역국이었으나, 경제위기로 원유공급을 점차 축소되면서 2016년에는 2위 교역국으로 하락
- 중국은 2016년부터 최대교역국 자리를 석권. 쿠바에 버스, 차량, 농기계, 가전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며 쿠바로부터 니켈, 설탕을 대량 수입
- 아시아에서는 베트남(10위), 일본(21위), 인도(26위), 한국(28위) 순으로 교역

[쿠바의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수입액			수출액			교역액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Total	13,037	11,702	10,270	4,857	3,350	2,317	17,894	15,052	12,587
1	China	1,334	2,331	2,328	302	268	257	1,636	2,599	2,586
2	Venezuela	5,189	2,794	1,583	2,070	1,438	642	7,258	4,232	2,225
3	Spain	1,025	1,187	1,134	141	147	177	1,166	1,334	1,311
4	Canada	408	366	277	525	361	329	933	727	606
5	Brazil	587	642	441	63	49	65	651	691	506
6	Mexico	443	460	422	16	15	30	459	475	453
7	Italy	392	429	414	29	24	21	421	452	435
8	Argentina	336	369	421	22	20	8	357	389	429
9	Germany	323	360	331	55	47	52	378	407	382
10	VietNam	242	247	270	27	5	5	269	252	275

자료원: 쿠바통계청(ONE)

다. 투자진출

□ 쿠바정부의 투자 관련 정책방향

- 2011년 제 6차 공산당 전당대회 의결을 통해 연간 경제성장 5% 달성을 위해 연간 2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유치 필요성 강조
 - 기존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점을 '보완적'에서 '필수불가결'로 전환
 - 이의 실현을 위해 마리엘특구법 제정(2013년), 신외국인투자법 제정(2014년)
- 2018.7월에는 행정절차지연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자들의 비판을 수렴하여 투자신청시 절차 간소화 조치 단행(기존 제출서류 중 타당성조사 대신 사전타당성조사로 대체 등)

□ 마리엘개발특구(ZEDM)

- 2014년 전격오픈한 마리엘특구는 2018.8월 현재 총 37개 프로젝트(투자금액 12.5억불)를 유치 성과 거양
 - 제반 인프라구축 지연, 행정절차지연 등으로 당초 목표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가동 중인 프로젝트는 주로 건설, 로지스틱스, 장비임차 등 서비스이며, 제조프로젝트는 설비 구축 투자준비 단계
- 주요 투자국은 유럽(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및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등) 국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3개 프로젝트 투자 중

[마리엘특구 투자 프로젝트 현황]



자료원: 마리엘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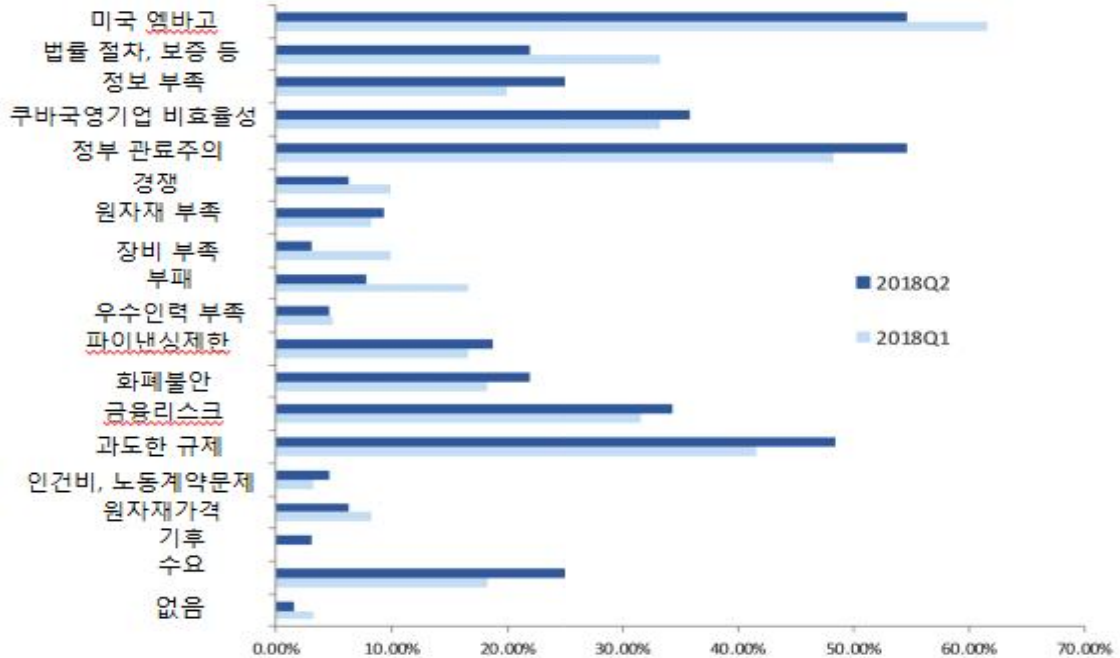
□ 주요 비즈니스 애로사항

- (미국 엠바고) 대쿠바 거래시 미달러 사용금지, 미국산 부품사용제한, 금융기관들의 대쿠바 거래 회피현상 발생
- (관료주의, 행정지연) 의사결정구조가 복잡하고 불투명
- (금융 리스크) 만성적 외환부족으로 대금미결제 및 대금지연 빈번

- (간접 고용) 쿠바진출 외국기업은 쿠바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쿠바정부인력회사를 통해 파견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고비용이 발생 및 인력활용 유연성 부족

[쿠바 사업추진시 애로사항]

(질문) 쿠바에서 사업 추진시 제약을 가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자료: Cubastandard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역제

가. 교역

□ 對쿠바 수출

- 우리나라의 對쿠바 수출액은 2006년~2008년 기간 중 발전기(현대중공업) 및 에어컨·냉장고(LG전자) 등의 대형 수출로 연간 최고치인 2~3억불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이후에는 연간 수출액이 4~7천만불 수준

[한국의 對쿠바 수출]

(단위: 천 달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9월)
대쿠바 수출	73,980	74,203	57,839	55,819	51,535	42,139	70,780	46,503
대쿠바 수입	29,769	2,172	9,730	12,172	5,671	5,717	2,964	3,388
무역수지	44,211	72,031	48,109	43,647	45,864	36,422	67,816	43,115

자료원: KITA

- 쿠바전역에 가동되고 있는 현대디젤발전기 A/S용 부품이 최대 수출품목이며, 이어 자동차, 자동차부품, 레진, 의료기기, 건설증장비 등이 차지

[한국의 對쿠바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순번	코드	품목명	2016년		2017년	
			수출금액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총계	42,139	-18.2	70,780	68
1	74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6	-99.9	20,653	323,662
2	741	자동차	2,452	-21.3	11,302	360.9
3	214	합성수지	3	28.2	7,778	270,894
4	742	자동차부품	6,668	-2.8	7,301	9.5
5	622	동제품	0	-100	5,153	0
6	733	의료용기기	149	-90	2,058	1,278
7	320	고무제품	81	-92.3	1,680	1,979
8	725	건설광산기계	1,741	64.6	1,475	-15.2
9	835	건전지및축전지	623	153.8	1,391	123.4
10	814	전자응용기기	4,148	1,835	1,358	-67.3
11	711	원동기및펌프	312	-93.4	1,278	309.5

자료원: KITA

□ 對쿠바 수입

- 한국은 쿠바로부터 사탕수수원료(fatty alcohol), 시가, 럼주, 커피, 해산물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한국의 對쿠바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순번	코드	품목명	2016년		2017년	
			수입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총계	5,717	0.8	2,964	-48.2
1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448	282.5	2,454	69.5
2	0239	기타축산물부산물	20	-89.5	197	882.6
3	0154	연초류	2,134	2,570.0	184	-91.4
4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100.0	61	0.0
5	0157	주류	50	-97.6	40	-19.2
6	0151	커피류	7	-32.0	18	169.6

자료원: KITA

나. 투자

□ 우리기업의 對쿠바 투자진출 현황

- 우리나라의 對쿠바 직접투자는 전무
- 지사설립기업은 현대종합상사(무역), 쿠세코(무역) 2개사이며, 교포기업으로 네네카(국적: 베네수엘라)가 있음

□ 쿠바 투자진출 고려시 유의사항

- 쿠바는 타 중남미국가 대비 투자승인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쿠바정부의 중점투자분야를 분석하고 적합한 사업 확인 필요
- 특히 매년 11월 쿠바정부가 발표하는 'Investment Portfolio'에는 프로젝트 개요, 담당 쿠바기업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는 바, 서면접촉, 방문상담, 비밀보호각서 체결, 협상 등의 순으로 진행 필요
- 對쿠바 투자진출 외국기업들은 투자이전에 다년간 수출, 서비스계약 등을 통해 쿠바시장에 정통하고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충분한 시간투자 및 치밀한 시장조사 없이 선부른 투자 추진은 위험이 높음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한-쿠바 민간 경제협력위원회 활성화

- 운영 배경
 - 미·쿠바간 국교정상화 계기(2015.7.1) 향후 시장개방 가능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양국 제계간 협력채널 구축
 - * 쿠바는 총 14개국과 경험위 운영(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
- 운영 경과
 - 전경련-쿠바상의간 경험위 운영 MOU 체결(2016.5월/서울)
 - 1차 경험위 개최(2016.10월/아바나), 2차 경험위 개최(2017.5월/서울)
- 활성화 방안
 - 양국기업활동 강화를 위한 주요의제별 액션플랜 수립 및 실행
 - 정부 및 유관단체와의 유기적 협업 강화

□ 한-쿠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 추진배경

- 쿠바 KSP는 한-쿠바 정부차원의 유일한 양자사업으로 양국 정부·기업·학계간 협력 및 교류활동의 중심점이 되고 있음

* 양국정부간 최초 MOU체결 (기재부-쿠바 대외무역부, 2016.10월)

○ 기업 활용현황

- 프로그램구성시 기업참여, 비즈니스포럼 등 연계로 우리기업의 대 쿠바 진출기회로 연결

* 중견기업 S사는 2차년도 KSP를 통해 쿠바기상청(INSMET)에 태양광발전설비 기증 및 기술교육사업 추진 (2018.5월)으로 신재생에너지 진출기반 강화

[쿠바 KSP사업 추진 내역]

연도	쿠바 협력부처	주제
2015/16 (완료)	대외무역부	쿠바 무역투자 진흥기구의 역량강화
2016/17 (완료)	에너지광업부	쿠바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안 및 산업화 전략
2017/18 (완료)	산업부	쿠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정책
2018/19 (2018. 下)	산업부	쿠바 포장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 한-쿠바 교역확대를 위한 금융원활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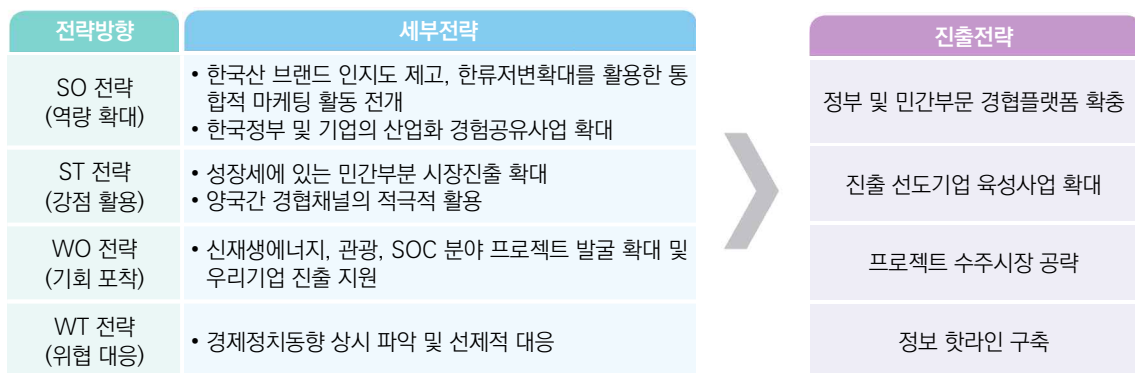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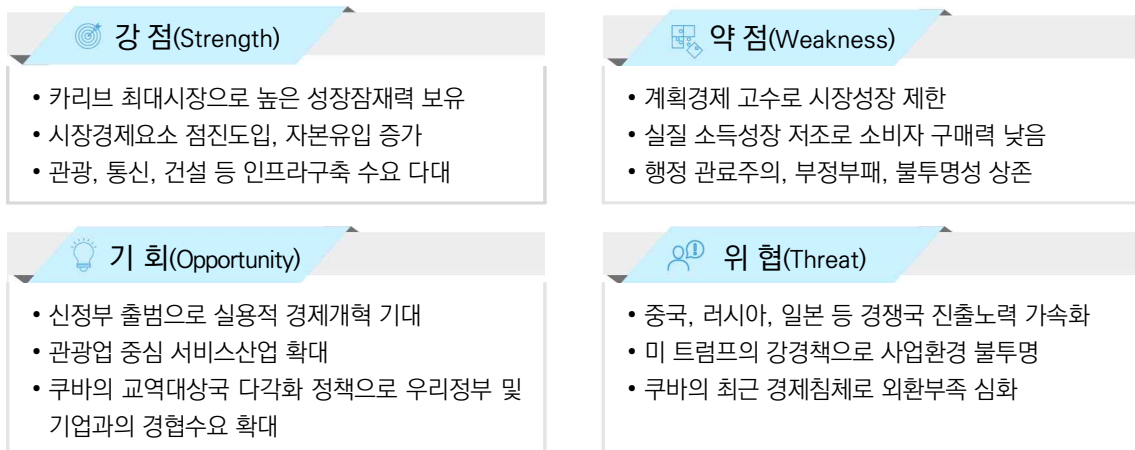
- 쿠바는 만성적 외환부족으로 수입시 보통 1년 외상 결제가 일반적이고 대금지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Ksure가 제공하는 무역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현 Ksure 부보액은 6천만 유로(2015년부터)이며 최근 우리 주요기업들의 노력으로 대쿠바 수출 증가 추세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 부보액 상향조정 필요(쿠바정부 및 재계는 2018년 초부터 부보액 상향조정 요청 중)

III 진출전략

- KSP, 경험위 등 정부·민간 경험플랫폼 활용 강화 및 협력범위 확대
- 쿠바정부 전략육성분야(관광, 에너지, 의료 등)를 중심으로 기회발굴 노력 강화
- 우리기업의 안정적 수출 지원을 위한 양국 금융협력 확대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쿠바 지역 SWOT 분석]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가. 신재생에너지 신시장, 화석연료 전통시장 투트랙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쿠바는 현재 95%가 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중(신재생에너지 발전을 2030년까지 24% 확대 계획) ○ 기존 발전설비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및 신규발전 프로젝트 수요 지속 발생 ○ 기 진출 현대중공업 디젤발전기의 쿠바발전분야 높은 기여율(30%)로 한국기술 인지도 높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최대 우방국인 베네수엘라 경제위기로 원유공급 불안정성 증가로 석유자급자족 필요성 증가. 멕시코만 및 연근해안을 중심으로 메이저 글로벌기업을 통해 유전개발을 본격 추진 중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수력발전 분야에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디젤발전기 등 기 진출분야에 대한 부품시장을 지속 확대하고, 신규발전 및 기존플랜트 성능개선 프로젝트 발굴 필요
- 쿠바의 관계기관은 전력청(UNE) 및 Energoimport(수입업체)이며, 정보입수를 위해서는 벤더 등록을 하여 상시 입찰정보 입수 및 분석 필요
 - 이들 기업과의 사전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함. 쿠바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력심포지엄, 전시회 등에 참가하거나 관계 진전시 방한초청 및 시찰주선 등도 추진 필요
- 유망분야 : 태양광 발전설비(판넬), 풍력발전설비, LED가로등, 절전형 가전제품, 에너지저장설비, 전력누수감지 및 방지시스템, 디젤발전기 부품 등

나. 쿠바의 최대 성장산업 관광분야 적극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쿠바의 최대성장산업은 관광업으로 연간수입액이 상품수출액보다 높은 35억 달러 수준
- 현재 미국관광객 비중은 미미하나 향후 엠바고 해제시 카리브의 최대 관광대국으로 부상 유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쿠바의 관광객유치수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를 기점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관광객수 2013년 280만 → 2017년 470만)
-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고급호텔건축, 골프장건설, 의료관광센터 구축 프로젝트 추진 확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관련 유망분야
 - (호텔) 가전기기, 식음료 등
 - (의료관광) 의료기기, 검진시스템 등
 - (리모델링) 전자재, 인테리어 제품 등
 - (차량) 관광객 렌트용 승용차, 버스 등
 - (위락시설) 골프장, 콘도, 마리나, 호텔 등
- 관광분야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상당기간의 시장조사 및 네트워크구축이 필요하며 쿠바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은 바, 직간접 수출을 통해 시장진입이 선행되어야 함
- 매년 5월 개최되는 쿠바 관광전시회(FITCUBA)등 참가·참관을 통해 관광 관련 쿠바 비즈니스 기회 발굴노력 확대 필요

다. 건설·프로젝트 시장, 파이낸싱과 전략적 제휴가 관건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건설시장은 외국기업 진출이 미미하고 진입장벽 높지만 성장가능성 무궁무진
- 점진적 시장개방에 따라 공항, 항구, 호텔, 전력설비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 확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쿠바는 매년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인프라 피해복구수요가 많고, 보급형주택건설, 관광객 유치설비신축, 발전설비확충 수요 등으로 건설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임(2018년 12% 성장)
- 쿠바 진출 해외건설사는 프랑스, 브라질, 중국, 베트남 등이며 분야별 독과점 형태로 시장 장악
- (건설/건축) 허리케인 어마IRMA 피해복구사업 시행, 20만 가구 주택 건축(13만 완공, 7만 착공) 등으로 2018년 건설분야 12% 성장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쿠바내 건설업 진출을 위해서는 프로젝트개발·수주가 우선해야 함. 기존 진출 외국기업들의 경우 쿠바 정부와 특수관계인 경우가 많아 이들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도 모색 가능

- 쿠바는 MDB 등 국제금융기관 자금 활용이 어려운 바 진출시 파이낸싱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BOT 등 직접관리·수익창출형 사업방식도 고려 필요

라. 무상의료 서비스로 의료기기·의약품 시장 안정적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쿠바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로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서비스를 대국민 복지서비스의 최우선 분야로 설정하고 있음
- 중남미 인근국에 5만여 명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의료장비, 교육 등을 융합한 전체 의료 서비스 수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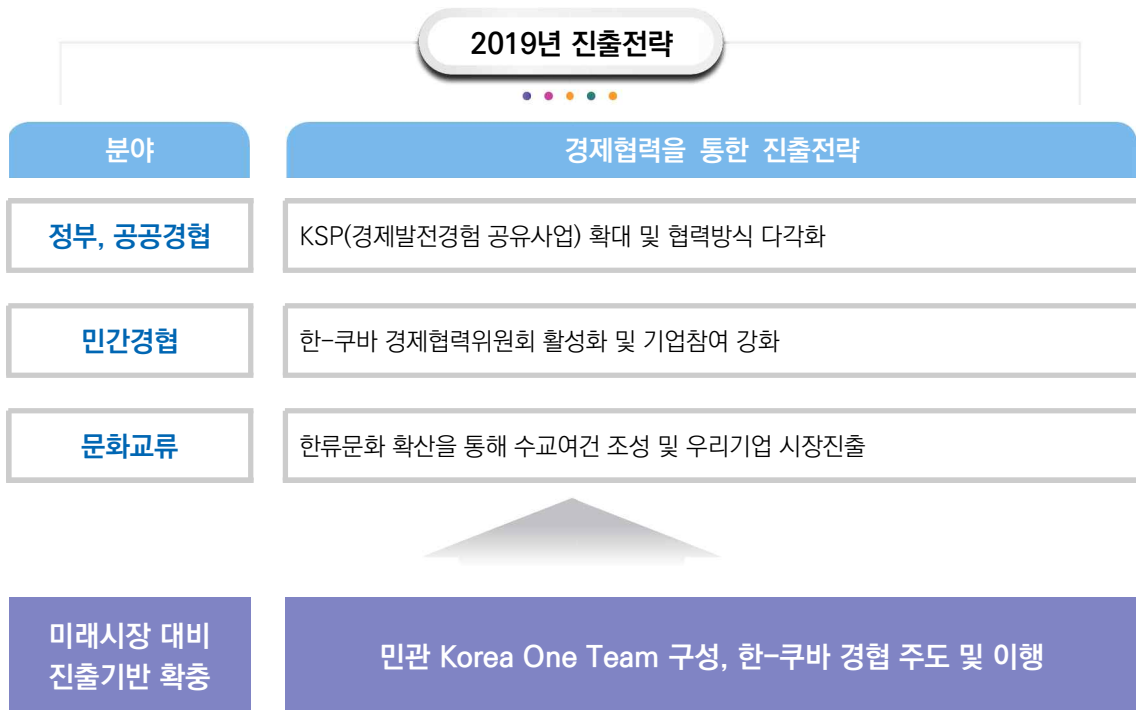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해외로는 의료진파견, 의료서비스 패키지 수출을 통해 외화수입을 증대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확대, 의료관광센터신축, 대민 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장비현대화 등 진행 중
- 쿠바의약품은 주로 제네릭 의약품 위주이며 국내수요의약품의 65%를 자체생산 중. 특히 당뇨 병치료제, 암치료제 등은 국제적 인정을 받아 해외수출, 기술이전, 임상시험 활발
- 중장기적 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주요제약사와의 조인트벤처 추진 강화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의료기기의 경우 임상시험을 위한 제반기술지원과 A/S가 중요 요소인 바, 기 진출 의료전문 기업을 적극 활용 필요(수출 이후에도 주기적 기술교육 등 지원 필요)
- 쿠바는 중남미 인근국에 의료진뿐 아니라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일괄패키지 수출도 병행하고 있는 바 중남미시장 진출시 전략적 제휴 가능
- 쿠바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조인트벤처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도 유망(예: 쿠바산 원료활용 제품생산 및 내수·해외수출 등)

3. 한-쿠바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쿠바 신정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 협력사업 추진

경제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디아스카넬 신정부는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고수하면서 점진적 개혁 추진 시사
- 정권초기부터 우리와의 경험의제 발굴 및 관계 강화 필요
- 쿠바의 최근 경제난 타개를 위한 협력국 다변화 정책을 기회로 연결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18.4월 취임한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은 전임 라울카스트로의 경제사회개혁가이드라인(lineamiento)를 계승·수호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천명하였음
-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 국영기업중심의 경제권력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통제가능한 범위내에서 실험적 성격의 자본주의가 자영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 신정부의 주요 경제과제로는 제조업육성을 통한 수입대체확대, 외국기업투자유치확대로 취약한 경제보완, 관광 등 외화수입증대사업 확대, 농업생산성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임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쿠바 정책방향에 맞는 핵심산업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KSP 등 정부간 협력사업 지속하고 기업진출기회로 연결 필요
- 기재부가 주도하는 KSP 이외에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타정부부처들의 공공협력사업도 개발하여 쿠바정부부처와의 공동사업 개발도 유망
- 향후 유망 협력분야로는 농업생산성개선, 대중교통개선, 건설서비스경쟁력강화, 제조업협력, 관광인프라 확충, 전자정부 등을 들 수 있음

나. 기업간 협력채널 확대로 공동사업 기회 발굴

경제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쿠바정부는 비대해진 국영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대하고 생산성 개선을 위해 기업자율성 강화, 구조조정 확대, 인력감축 등 단행 중
- 쿠바 국영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젝트 추진 확대 추세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쿠바경제는 국영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업협회는 쿠바상공회의소(CCC) 1개 단체를 통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쿠바상공회의소는 전세계 14개국과 기업위원회(경협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기업간 경협 의제발굴, 계획수립 및 이행을 통해 교역 및 투자확대의 중요한 틀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과는 2016년 5월부터 경협위 운영 중(파트너: 전경련)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정기 운영되는 양국간 경협위를 활용해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관련기업·기관 매이메이킹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 활용 강화 필요
- 주요 유망 협력의제(잠정)으로는 쿠바제품(농수산물, 의약품)의 한국진출 확대, 양국간 금융협력(수출보험, 은행서비스), 한국기업 쿠바투자진출(관광, 제조, 건설 등), 조인트벤처사업, 기업간 기술이전사업 등임
- 현재 정기 개최되고 있는 Cuba Week(5월), Korea Week(10월) 등과의 연계를 통해 경협위 활동의 시너지 제고 필요

다. 한류확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

경제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쿠바는 우리나라와 미수교국임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에서 한류열풍이 크게 확산되는 시장임 (자생적 한류클럽 확산, 한류드라마 열풍, 한국어 교육 인기)
- 한류열풍은 주로 10-20대 여성 뿐 아니라 대부분 연령층으로 확산 추세이며, 한국 및 기업 이미지와 연계하여 상승 작용 유발
- 우리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한류 적극 활용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쿠바에는 국영채널을 통해 2013년 한류드라마 ‘내조의 여왕’이 첫 방영된 이후 한류열풍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음
 - 한류문화클럽(ArtCor) 회원수는 전국 2천명을 상회하며 정기모임을 통해 댄스교육, 한국어 교육, 요리교습, 문화학습 등 자체 시행
 - 한국어교육 수요도 증가하여 정규과정 수강생수는 약 200여명에 달하고 있음
- 한류열풍은 한국국가이미지 및 우수 기업브랜드와 상승작용을 형성하면서 우리기업들의 대 쿠바 진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브랜드숍(2016년), A/S숍(2018년)을 개장하여 브랜드 홍보 강화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한류열풍을 활용하여 뷰피, 패션, 소비재 등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진출 노력 강화 필요
 - 쿠바 대형유통매장에 K-브랜드숍 입점 추진 등
- 기존 추진 중인 주요 경험행사에 K-문화행사를 융합하여 기업진출과 한류확산의 시너지 효과 창출 노력 필요
 - (예시) 아바나국박 한국관 운영시 K-패션쇼 등 행사 개최(참가기업 콜라보레이션 등 가능)



수출유망 품목

품목명 1	HS Code	수입관세율(%)
의료기기	수입액(2017/US\$백만)	대한수입액(2017/US\$백만)
	선정사유	의료서비스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기초사회보장으로 지속적 장비공급 및 현대화 수요 발생
	시장동향	노후화된 의료장비가 다수여서 점진적 장비교체 시행 중
	경쟁동향	일본, 독일
	진출방안	파이낸싱 제공, 원활한 기술지원 필요
품목명 2	HS Code	수입관세율(%)
에어컨	수입액(2017/US\$백만)	대한수입액(2017/US\$백만)
	선정사유	관광업 호황에 따른 신규호텔, 민박업소의 에어컨 수요 증가
	시장동향	연간 30도가 넘는 고온으로 에어컨 수요 지속 발생
	경쟁동향	중국
	진출방안	호텔프로젝트 EPC업체, 수퍼마켓 대상 집중 마케팅
품목명 3	HS Code	수입관세율(%)
독립식 발전기	수입액(2017/US\$백만)	대한수입액(2017/US\$백만)
	선정사유	쿠바의 전력난 지속, 한국산 브랜드(현대중공업) 인지도 제고
	시장동향	베네수엘라 원유공급 불안정으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장비 현대화 수요 발생
	경쟁동향	독일, 중국
	진출방안	금융지원, 기술지원 강화
품목명 4	HS Code	수입관세율(%)
식품가공기계 식품포장설비	수입액(2017/US\$백만)	대한수입액(2017/US\$백만)
	선정사유	쿠바는 중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식량생산 증대, 포장산업육성을 통해 내수공급, 수출확대 추진중
	시장동향	식품가공/포장설비 확충 추진 및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
	경쟁동향	중국, 유럽
	진출방안	쿠바 농업부, 산업부 및 산하공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품목명 5	HS Code	수입관세율(%)
핸드폰, 스마트폰	수입액(2017/US\$백만)	대한수입액(2017/US\$백만)
	선정사유	젊은층을 중심으로 고기능 휴대폰 수요증가. 인터넷 사용자 증가
	시장동향	전국의 와이파이 핫스팟 확대, 쿠바인의 소득증가로 고급형 핸드폰 기기 유입 증가
	경쟁동향	중국
	진출방안	쿠바 기술수준에 맞는 일반 보급형 핸드폰 수출 추진

주: 쿠바는 품목별 수출입통계를 별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자료 입수 불가

호텔 등 관광시설 경영	선정사유	쿠바의 호텔은 국영이며, 국제적 수준의 노하우부족 및 자본부족으로 해외전문 경영기업과의 협업수요 증가
	시장동향	단순 경영뿐 아니라 SW시스템, 가구, 소모품, 리테몰링 등 자본투자까지 요구하는 추세
	경쟁동향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계의 다국적기업들의 진출우세
	진출방안	해외진출경험이 많은 우리 호텔운영사를 중심으로 쿠바호텔체인과의 사업협력 타진 필요
교육 콘텐츠	선정사유	쿠바인들의 해외여행자유화 조치에 따라 외국어 등 학습수요 증가
	시장동향	쿠바의 교육은 공교육 중심이나, 소규모학원을 자영업으로 허용 중
	경쟁동향	주로 자체제작 콘텐츠 사용
	진출방안	수요가 높은 영어 등 외국어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교육(자영업)시장 진입 우선 추진 필요.
건설	선정사유	호텔신축, 주택신축 등 건설시장 지속 성장
	시장동향	건설수요는 높으나 장비부족, 원부자재부족, 노하우부족으로 성장폭 낮음
	경쟁동향	쿠바진출 외국건설사는 프랑스, 중국, 베트남 등 일부기업에 제한됨
	진출방안	쿠바건설업 진출을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주와 병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금융	선정사유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낙후
	시장동향	국제적 수준의 금융시스템 미비로 비효율성 높음. 미국의 금융제재에 따른
	경쟁동향	스페인, 캐나다,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 금융업 진출
	진출방안	쿠바 주요상업은행과의 커레스 관계구축을 통해 금융협업 및 진출기반 점진 강화



2019년 KOTRA 주요 사업 (잠정)

□ 2019 쿠바주간행사(Cuba Week in Korea) 개최

- 기간/장소 : 2019.5월/서울
- 쿠바사절단 구성 : 15명 내외 (단장: 상공회의소장)
- 사업내용
 - (식품전) 쿠바관 운영, 식품·포장분야 교역·투자 지원
 - (민간경협) 한-쿠바 경협위원회 운영 점검회의
 - (쿠바투자진출설명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공동개최
 - (금융협력) 무역보험 활용현황 점검 및 확대 협의

□ 2019 한국주간(Korea Week in Cuba) 개최

- 기간/장소 : 2019.10월 말/ 아바나
- 사절단 구성 : 경제단체·기업인 50명 내외
- 사업내용
 - 아바나국제박람회(FIHAV) 한국관 참가 : 중남미진출기업 참여 확대
 - 한·쿠바 기업인의 밤(리셉션) 개최
 - 기업행사 : 비즈니스 포럼, 수출계약 체결식 등
 - CSR사업 : 한인후손회, 한류동호회 격려 문화행사

□ 한-쿠바 경제발전공유 사업(KSP)

- 기간/장소 : 연중/서울, 아바나
- 내용 : 쿠바 포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지원 및 교육

□ 한-쿠바 농업생산성 향상 기술협력사업 개최

- 기간/장소 : 2019.4월/ 아바나
- 사업내용
 - 5월 쿠바 농업기술심포지움(CubaAgricola)에 한국농업기술우수기업을 초청하여 쿠바농업연구기관과 공동 세미나개최 및 기술협력세미나 개최

- 쿠바농업 시험재배 등 후속사업 지원, MOU체결 등 추진

□ 쿠바 한류문화 행사

- 기간/장소 : 2019년 하반기/ 아바나
- 협업 : 외교부, 쿠바 한류클럽(ArtCor) 등
- 사업내용 : 한류붐 조성 및 수교여건 조성을 위해 K-pop경연대회, 한국어말하기 행사 등 개최

□ 쿠바 비즈니스환경 설명회

- 기간/장소 : 2019.7월/한국
- 사업내용 : 쿠바 교역 및 투자진출 유망분야 소개 및 사업설명회 개최
 - * KSP 방한연수단행사 등과 연계



첨부 4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실시	2월 24일	
아바나 설립 500주년 기념 행사	11월 16일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포장·그래픽 전시회(PACGAF)	1월 29-31일	
국제도서전	2월 7-17일	
국제관광 전시회(FITCUBA)	5월	
아바나 국제박람회(FIHAV)	11월	
아바나 국제영화제	12월	

담당자

아바나무역관 정덕래

Tel +53 7204 1020

직책 관장

Email drjeong@kotra.or.kr

2019 국별 진출전략

쿠바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